



2022. 8.2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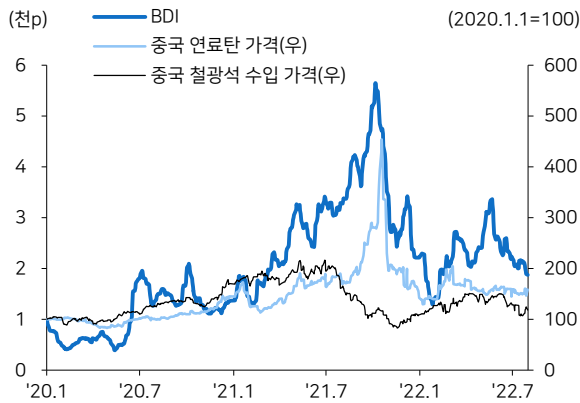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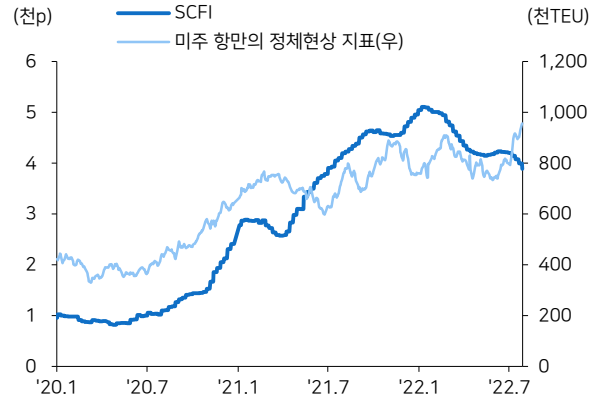
02. 6454-4873
jung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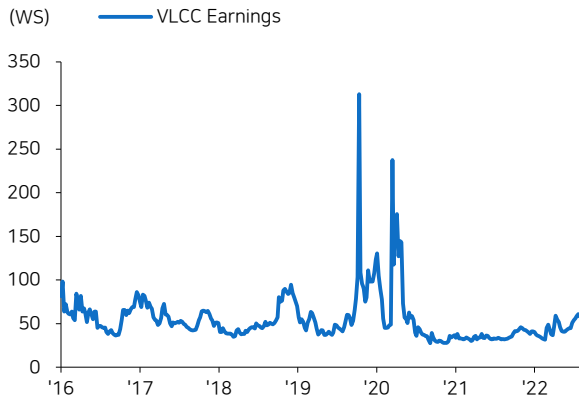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872.0p(-23.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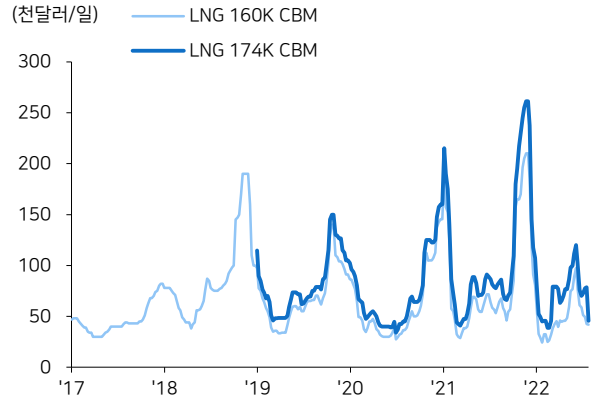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3,887.5p(-109.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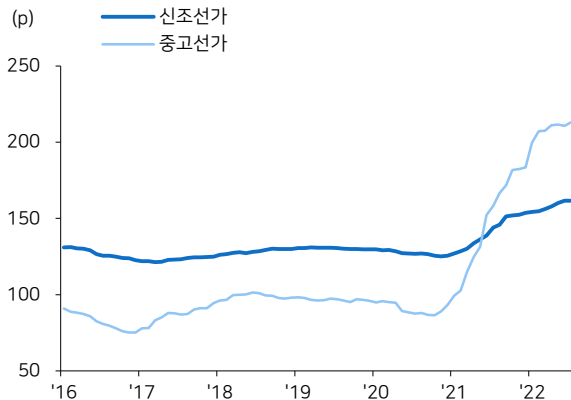
VLCC Spot Rate 57.8p(-3.0p WoW)



LNG Spot 운임 41.8p(-0.8p WoW)
45.5p(-33.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6p(+0.6p WoW)
213.1p(+2.0p WoW)



항공시장 지표 280.0p(+1.6p DoD)
87.6p(+1.1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미주서안항만 노사협상 탄력...의료급여항목 합의

미국 서안항만 노사협상이 일부 쟁점사항에 잠정합의하며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달 27일 의료 급여 항목 잠정합의를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함. 최대 쟁점인 항만 자동화 관련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정부의 작업 등으로 8~9월 중 노사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한편, 항만 혼잡은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코리아쉬핑가제트)

VLCC asset price spike not a repeat of 2008 'super cycle', says Poten

Poten에 따르면, VLCC신조선가와 중고선가가 다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 슈퍼사이클과는 다르다고 보도됨. 당시 선가 상승은 중국 석유 수요강세와 탱커 공급량 부족에 기인함. 조선소 건조 능력도 부족했음. 반면 현재 상황은 공급제한 및 지정학적 이유에 기인함. 또, 환경규제를 맞닥뜨린 상황임. 2008년에는 중고선가가 신조선가를 앞지른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알려짐. (Tradewinds)

Gazprom: no upside in Nord Stream gas export possible

러시아 가스프롬이 독일 지멘스가 러시아 사업 철수와 서방국가들의 장비 수입 제재가 철회되지 않는 한 노르트스트림1 수출량을 늘릴 수 없다고 발표했다고 보도됨. 총 8개 중 1개 터빈만 지멘스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데, 러시아는 아직 터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언급함. (Upstream)

High bunker prices lift Vale's iron ore shipping costs

Vale에 따르면 높은 bunker비용에도 중국항 철광석 수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보도됨. 중국항 철광석 수송 비용은 전분기대비 17.7%, 전년대비 21.7% 상향됐다고 발표함. 그러나 스크러버 설치를 통해 1.27억달러를 절감해 원가를 Spot 운임 아래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

Ship, owner and manager hit with US sanctions on Iran

미국이 이란 핵합의(JCOA) 복귀 촉구 일환으로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 수출 관련 기업 6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4주래 두번째로 발표된 제재임. 한편, 핵합의로 이란 제재가 완화된다면 최대 석유 100만배럴/일이 추가 유입되어 탱커 시장 회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됨. (Tradewinds)

러시아 편 든 새 OPEC 사무총장

신임 OPEC 사무총장이 러시아의 OPEC+ 회원자격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됨. 원유 생산량 합의에 필수 요소라고 설명하며 OPEC은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영향력이 큰 러시아와 경쟁하지 않는다고 언급함. 한편, OPEC+는 3일 회의를 열어 원유생산량을 결정할 예정임. (한국경제)